

보도해명자료 (19. 1. 1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는 구글세 관련 입장을 밝힌 바가 없음

(동아일보, 1.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구글세 관련 입장을 정리한 바는 없습니다.
- 1월 17일 동아일보 <“한국기업도 해외서 규제 우려, 구글세 도입 안할 듯”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정부 관계자는 “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글세 도입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”이라고 말함
- 정부 관계자는 “글로벌 IT 기업에 법인세를 물릴 경우 세수가 늘어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”고 말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우리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구글세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입장을 언급한 바 없음
- 서버 현지화, 데이터 이전 원활화 등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요청 사항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이종석 과 장(044-203-5630)
김규현 사무관(044-203-5632)